

한국 속담에 내재된 춤 문화 연구

김 주 희*

- | | |
|----------------------|----------|
| I. 여는 글 | IV. 맺는 글 |
| II. 한국 속담 안에서 표상되는 춤 | 참고문헌 |
| III. 속담에 내재된 춤 문화 논의 | Abstract |

I. 여는 글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속담 안에서 춤이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지 주목함으로써 구전 문화사 안에서 인식되고 있는 춤을 논의하는 것에 있다. 언어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언어 중에서도 속담은 사회의 인식 체계를 재현하고 있다. 또한 발화된 속담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소멸되거나 구전되고 시대에 맞는 또 다른 속담을 생성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속담은 인간의 욕망을 압축하여 발현한 언어일 뿐 아니라 사회, 문화, 민족의 정체성 등을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대속담을 언어놀이로 조망하고 있는 곽은희(2013)는 ‘속담이 현시대의 존재론적 모습을 띄고 있으며, 대중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된 우리 문화의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¹⁾

속담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국문학과와 같은 언어학전공이나 민속학, 비교 문화학, 인류학, 사회학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그 연구의 대부분은 구비문화이자 민속학적 측면에서 속담을 수집, 정리한 사전(辭典)의 형태였다. 사전형태 외에도 김세훈(1999), 한탁철(1999), 정유지(2004), 김정환(2011) 등은 속담에서 사용되는 동물이 문화권에 따라 어떻게 통용되는지를 분석하거나 속담 속 동물을 통해 그 문화양상을 해석하였고, 양지선(2006), 양민정(2009), 공지현(2010), 오소정(2012), 조복희(2014) 등은 속담을 통한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속담을 통해 경제학적 측면을 밝히고자 한 노상채(2008)와 과학에 대한 논의로 이끈 장하나(2006), 속담을 통해 문화의 특징을 유추한 박환영(2014), 곽은희(2013, 2015), 이황진(2015) 등의 연구가 있다.

본 연구자는 속담관련 자료를 분석 중 몇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였다. 한국 속담 안에서의 춤은 끊임없이 소재로서 등장하였지만, 무용학 분야에서 이를 재고찰한 연구는 미비하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속담을 통해 춤 문화를 역 추적하거나 어문학 계열의 연구자들 중에서 춤을 논지의 대상으로 고찰하지

* 성균관대학교 박사, sunjang33@gmail.com

1) 곽은희(2013), 언어-놀이 문화로서 속담 연구, 『구비문화연구』 37, pp.2-5.

않았다. 김정(1994)은 「한국인 표현행위 기질과 예술적 심성에 관한 연구」에서 ‘전설이나 속담과 같은 구전전승과 춤, 유희, 그림 등과 같은 유형의 전통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이것이 한국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이해하게 해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점에서 속담 안에 춤을 살펴보는 것은 그 사회 안에서 춤이 차지하는 인식의 정도와 위치를 짐작하여 그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사료된다.

이 연구의 필요성은 두 가지이다. 첫째, 춤에 대한 시대시선이 속담 안에 그대로 투영되었기 때문이다. 언어와 문화와의 관계를 밝힌 언어인류학자인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나 벤저민 리 워프(Benjamin Lee Whorf)는 사피어-워프의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을 통해 구성원과 민족의 배경 및 특성 변화를 속담의 전승과정 속에서 파악하고 있다.²⁾ 따라서 속담은 굴곡진 역사에서 살아 온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이 속담을 살펴보는 것은 단순히 속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함의하고 있는 사회인식의 전형들을 문화정치의 구조를 다르게 탐색하고, 그 사회의 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제공되어 줄 것이라 생각한다. 남미리(2014)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속담을 통해 전통생태지식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업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배우지 않은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실험을 실시한 연구를 통해 속담을 이용한 학습이 유추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정체성이 압축된 형식으로 함축되어 있는 속담 안에서 춤이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는 것은 언어 속에서 춤 문화가 어떻게 자리매김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둘째, 언어는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춤과 함께 쓰인 속담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 속담은 비유나 은유를 통해 중의적인 표현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속담들은 오늘날 빠른 경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보다 직설적인 표현이나 줄임말로 대체되어지고 있다. 직설적인 표현이나 줄임말은 TV나 광고 매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되면서 보편언어가 되었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유포, 수용되고 있다. 속담의 유동성에 대해 곽은희(2013)는 ‘속담을 옛 것의 변용된 의미보다는 전통의 창조적 계승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박환영(2014)은 ‘오늘날 인터넷 환경 아래에서 사용되는 속담을 고차원적인 언어유희로써 재발견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속담관련 서적 10권을 선정하여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속담을 1차로 추출하였다.³⁾ 추출된 속담 자료를 토대로 가장 빈번하게 연결되고 있는 내연적 의미를 분석하여 농

2) 박환영(2014), 『속담과 수수께끼로 문화읽기』(서울: 새문사), p.18.

3)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선정하는데 있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발행된 서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현재에도 출판 판매되고 있거나 문서관 장소에서 외부반출이 가능한 자료로 선별하였다. 그리고 각 사전마다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가 많아 참고의 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제외하였다.

본문에서 춤과 관련된 속담을 정리하는데 있어 가나다순으로 하였으며, 책마다 같은 속담이 반복되고 현재에도 구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출처를 각주로 기입하지는 않았음을 밝힌다.

곽은희(2015), 『현대속담』(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윤창울(2007), 『두배로 내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속담』(서울: 인터미디어).

이선중(2008), 『한국의 속담 대백과』(서울: 아이템북스).

송재선(1997), 『동물 속담 사전』(서울: 동문선).

심후섭(1999), 『재미있게 풀어 쓴 한국의 속담』(서울: 이상사).

박미경(2006), 『다가하시 도루의 조선 속담집』(서울: 어문학사).

박환영(2014), 『속담과 수수께끼로 문화읽기』(서울: 새문사).

전치수(2011), 『알수록 재미있는 속담』(경기: 매월당).

정종화(1995), 『한국 전통 사회의 정신문화 구조양상』(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최창렬(1999), 『우리속담연구』(서울: 일지사).

경문화, 가족문화, 생활문화, 여성문화로 구분하여 살펴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춤 문화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속담의 구조 안에서 어떻게 춤을 은유하고 비유하여 의사소통의 상징으로 마련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춤에 대한 다양한 사회문화 인식의 해석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이라 사료된다.

II. 한국 속담 안에서 표상되는 춤

1. 한국의 춤 속담

춤과 관련한 속담을 추출하는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고 굿, 장구, 무당 등과 같은 단어들로만 이루어진 속담은 제외하였으며, 춤과 관련된 속담은 <표 1>과 같다.

<표 1> 춤 관련 속담

‘거문고 뜯는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본인은 할 만한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이 하는 짓을 덩달아 따라 하다가 웃음거리가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기린은 잠자고 시라소니가 춤춘다’
과거 선인들에게 기린은 성인이 상서로운 동물로 춤처럼 쉽게 볼 수 없는 동물로 인식되었으며, 이에 반해 시라소니는 빈번하게 출몰하여 앙칼스러운 성질로 해악한 짓을 하는 짐승으로 여겨졌다. 즉, 성인(聖人)은 깊숙이 들어 앉아 활동을 아니 하고, 간악하고 무능한 사람이 날뛰고 움직인다는 뜻
‘굿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 한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사람이 참여 하여 기뻐하는 것이 보기 싫어서 꺼려진다는 의미
‘그 장단에 춤추기 어렵다’
명령이 분명치 않고 자주 변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의미로 하기 편하고 이득이 많은 일인지 않고, 생기는 것도 없는데 험하고 고달픈 일을 한다는 뜻
‘피꼬리가 노래하고, 제비가 춤을 춘다’
따뜻하고 좋은 봄철이 되면 만물이 봄을 찬미한다는 의미
‘남의 피리 장단에 궁둥이 춤춘다’
좃대 없이 굴거나 관계없이 남의 일에 덩달아 나서는 것을 이르는 말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추더라’
딱하고 답답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가장 뼈아프게 알아야 할 사람이 도리어 반대 방향으로 나감을 미워하여 이르는 말. 비슷한 속담으로 ‘빚 얻어 굿하니 맘머느리 춤춘다’가 있다.
‘디딜방아질 삼년에 엉덩이춤만 배웠다’
디딜방아질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엉덩이춤도 절로 추게 된다는 말
‘벌린 춤판이라’
이미 시작한 춤판이라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다는 말로, 이미 시작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는 없다는 뜻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밀천이 많으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다’
소매가 길면 춤을 출 때 자태가 아름다워 쉽게 요염하고 다양한 자태를 낼 수 있다는 말로, 자산이 많으면 일을 쉬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소매가 긴 김에 춤춘다’
별로 생각이 없던 일이라도 그 일을 할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게 될 때 사용되는 말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듣고 일어나 춤춘다’
옛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마다 북을 쳐서 알리거나 시간을 알릴 때에도 북을 쳤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북소리만 듣고 일어나 춤을 춘다는 것이다. 이는 경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쓰는 속담
‘시누울게 춤추는데, 가운데 올케 못 춤출까’
자기도 마땅히 그 자리에 참여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뜻으로 하는 말
‘씨보고 춤춘다’
성미가 급하여 너무 일찍부터 서두른다는 뜻으로 수확도 하지 않았는데 기뻐한다는 말
‘어느 장단에 춤추랴’
참견하는 사람이 많아 어느 말을 따라야 할지 모를 때 하는 말
‘오동씨만 보아도 춤을 춘다’
오동나무의 씨만 보고도 그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 그걸로 가야금 만들 것을 생각하며 미리부터 춤을 춘다는 것으로 나중에 할 일을 성급하게 서둘러 하는 것을 비유하는 속담
‘용이 날고, 봉이 춤춘다’
용이 날고 봉이 춤추듯이, 높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뜻
‘월님은 책방에서 춘다’
사람의 진가를 드러내는 일은 그를 잘 알고 있는 자리이어야 함을 이르는 말
‘자기도 모르게 발과 손이 춤을 춘다’
孝(효)와 悌(제)를 실천함에 있어 즐거운 마음에 저절로 하게 된다는 뜻
‘장구를 쳐야 춤도 춘다’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말로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
‘집안이 결단나면 생쥐가 춤을 춘다’
‘집안이 망하려면 생쥐가 춤을 춘다’라고도 하는데, 집안이 안 되려면 짐승들이 번고를 일으킨다는 뜻
‘집안이 안 되려면 구정물 통의 호박꼭지가 춤을 춘다’
‘집안이 망하려면 생쥐가 춤을 춘다’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속담으로 가운(家運)이 기울어지면 별별 이상한 일이 다 생긴다는 것
‘제가 춤추고 싶으니까 동서보고 춤추란다’
본인이 먼저 나서서 하고 싶어도 입장이 거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먼저 권하는 말
‘초상난데 춤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하고 방정맞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
‘큰 무당이 춤을 추고 작은 무당이 장구 친다’
기술이 나은 사람 앞에서 기술이 못한 사람이 나서기를 꺼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큰 무당이 있으면 작은 무당은 춤을 안춘다’
기술이 나은 사람 앞에서 기술이 못한 사람이 나서기를 꺼려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통통한 배 다음에 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과 같이 배가 불러야 춤도 출 수 있다는 말

2. 한국 속담에 내재된 춤 문화

가. 농경문화와 춤

‘논 팔아 굿하니 만머느리 춤 춘다’, ‘디딜방아질 삼년에 영덩이춤만 배웠다’와 같이 농경생활 속에서 춤이 함께 위치되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디딜방아는 곡식을 찧는데 사용되는 전통적인 농기구로 발로 방

아절을 밟는 사람(들)과 곡식을 뒤집어 주는 사람 간의 호흡이 필요한 노동이다. 디딜방아를 하는 동안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데, 그 움직임은 방아를 찰는 동작과 뒤집는 동작이 반복되는 규칙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반복동작은 동일한 리듬을 낳고, 찰는 소리 또한 박절이 일정하게 발생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농경사회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동작이 엉덩이를 실룩거리는 엉덩이 춤과 같이 연상된다는 것이다. 일을 하건 춤을 추던 간에 엉덩이를 움직이는 동작은 춤에 있어 빠지지 않는 중요한 춤사위이며, 이는 결국 서민 계층의 대표적인 움직임의 전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봉산탈춤에서 천민신분을 갖은 미얄의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때 ‘실룩거리는 엉덩이 움직임’에서 다시 확인 할 수 있다. 김말복(2005)은 미얄의 주된 춤사위가 궁둥이를 좌우로 심하게 흔들어대는 걸음걸이 춤이라고 설명한다.⁴⁾

‘씨보고 춤춘다’와 ‘오동씨만 보아도 춤을 춘다’는 모두 씨의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씨만 보고서 기뻐서 춤을 춘다는 것이다. 농경생활에서 씨 뿌리는 작업은 농사를 시작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씨의 결과물을 수확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농경사회 안에서 춤은 지나긴 노동의 결과물이 비로소 나왔을 때 느끼는 기쁨과 감격의 표현을 드러낼 때 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오동씨만 보아도 춤을 춘다’에서 나오는 오동은 ‘딸을 낳으면 오동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올 정도로 귀한 가구나 거문고, 비파, 가야금과 같은 악기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나무이다. 이는 고급 소재로 만든 악기 연주에 춤을 추는 것이나 딸이 시집을 가는 것이 기뻐 춤을 추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경사스러운 날 춤을 추는 것이 당연한 행위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으나 이 속담들 안에서 춤은 그 상황을 앞선 행위로 경술하거나 시기상조였음을 강조하는데 춤을 춘다고 말하고 있다.

나. 가족문화와 춤

한국의 속담에서는 가족주의와 춤이 빈번하게 연결되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안이 결단나면 생쥐가 춤을 춘다’나 ‘집안이 안 되려면 구정물 통의 호박꼭지가 춤을 춘다’에서 볼 수 있듯이 ‘집안’에 대한 강조는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의 독립성 보다는 가(家) 혹은 사회와 같은 공동체적 삶이 더 우선시 되었다.

‘굿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한다’,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 추더라’, ‘시누 올케 춤추는데 가운데 올케 못 춤출까’, ‘제가 춤추고 싶으니까 동서보고 춤 추란다’와 같이 가족에 대한 호칭이나 서열이 세분화되어 있어 한국문화가 개인 보다는 서열적인 가족문화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경사(慶事)나 기분이 좋을 때 춤추는 것이 일반적인 행위였으나 속담은 그 상황에 있어 춤추는 행위가 맞지 않는 부정(不正)적 행동임을 인식시켜주고 있다. 춤과 관련한 속담은 가족문화 안에서도 남성 보다는 여성간의 관계 속에서 주로 배치되고 있어, 춤이 남성사회보다는 여성사회 안에서 더 일반적인 행위문화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박환영(2014)은 ‘속담의 내용 중에는 여성과 관련된 것이 특히 많은데, 이것은 일상적인 언어생활 속에서 여자들을 빗대어 표현하는 당시의 남존여비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동시에 여성이 갖고 있는 삶의 애환(哀歡)과 한(恨)이 반영된 카타르시스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한다.’⁵⁾ 춤과 관련한 속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여실히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4) 김말복(2005), 『우리 춤』(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p.107.

5) 박환영(2014), p.88.

다. 생활문화와 춤

속담 안에서 사용되는 춤은 사회문화 외에도 의복(衣服)과 같은 전통적 생활을 엿볼 수 있다. ‘소매가 길면 춤을 잘 추고, 밀천이 많으면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와 ‘소매가 긴 김에 춤춘다’에서와 같이 춤을 추는데 있어 긴 소매의 길이가 춤의 멋스러운 자태와 아름다움을 내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장구를 쳐야 춤도 춘다’,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 듣고 일어나 춤춘다’, ‘남의 피리 장단에 궁둥이 춤춘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춤을 추는데 있어 사용된 악기가 장구, 북, 피리였음을 알 수 있다.

‘큰 무당이 춤을 추고 작은 무당이 장구 친다’, ‘큰 무당이 있으면 작은 무당은 춤을 안춘다’, ‘굿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한다’,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 추더라’에서 볼 수 있듯이 춤은 ‘굿’, ‘무당’과 같은 무속신앙과 결부되었다. 무당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귀신을 섬겨 길흉을 점치고 굿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주로 여자를 이른다’고 설명한다. 이를 통해 무속적 행위를 하는 무리 중에 서열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열을 나타내주는 기준은 바로 춤을 추느냐 안 추느냐에 따라 구분될 수 있고, 춤을 추는 행위가 음악을 하는 행위 보다 앞선 서열임을 파악할 수 있다.

라. 여성문화와 춤

‘굿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한다’,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 추더라’, ‘시누 올케 춤추는데 가운데 올케 못 춤까’, ‘제가 춤추고 싶으니까 동서보고 춤 추란다’, ‘큰 무당이 춤을 추고 작은 무당이 장구 친다’, ‘큰 무당이 있으면 작은 무당은 춤을 안춘다’, ‘굿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한다’,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 추더라’ 춤 관련 속담에서는 여성과 연관이 많아 가부장적인 전통 사상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가족문화와 춤’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속담 안에서 춤추는 행위는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뜻을 돌려 얘기할 때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춤과 관련한 속담은 남성보다는 여성사회의 관계 속에서 연결되고 있다. 이는 춤을 부정적인 뜻과 여성적 행위로 규정짓는 남성중심주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III. 속담에 내재된 춤 문화 논의

한국 속담 안에서 춤은 단순히 ‘춤을 추는 행위’에서 벗어나 속담이 갖는 은유와 환유의 기능이 결합되면서 사회반영의 기능, 소통의 기능으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속담이란 것이 구전문화 속에서 전승되려면 사회적 이해 이전에 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체계가 결합되고 많은 공감대가 형성된 그 시대 안에서 보편화된 담론의 파편이란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속담 안에서 춤이 어떻게 표상되어 언어활동을 촉발시키는 가는 알아보는 것은 춤의 유포와 역 반응적 활용을 통해 일반화된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인식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통통한 배 다음에 춤’, ‘피꼬리가 노래하고 춤을 춘다’, ‘용이 날고, 봉이 춤춘다’, ‘자기도 모르게 발과 손이 춤을 춘다’라는 속담에서는 사회적으로 춤추는 행위가 주변상황이 만족스럽고 풍요로울 때 자연스

럽게 나오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춤을 추는 행위가 긍정적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담의 문장 구성 안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재배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거문고 뜯는 놈이 춤을 추면, 칼 쓴 놈도 춤을 춘다’, ‘기린은 잠자고 시라소니가 춤춘다’, ‘긋하고 싶지만 맘머느리 춤추는 것 보기 싫어 안 한다’, ‘남의 피리 장단에 궁둥이 춤춘다’, ‘논 팔아 굿하니 맘머느리 춤추더라’, ‘시누올케 춤추는데, 가운데 올케 못 춤까’, ‘씨보고 춤춘다’, ‘오동씨만 보아도 춤을 춘다’, ‘집안이 결단나면 생쥐가 춤을 춘다’, ‘집안이 안 되려면 구정물 통의 호박꼭지가 춤을 춘다’, ‘제가 춤추고 싶으니까 동서보고 춤 추란다’, ‘초상난데 춤춘다’. 이 속담들은 공통적으로 춤추는 행위가 경사스럽거나 기쁠 때 행하는 행위임을 밝혀 주고 있으나 속담안의 상황과는 어울리지 못한 행동이란 점에서 춤을 위치시키고 있었다. 한국 속담 안에서 춤을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 의미로 배치시키는 사례가 더 많은 이유는 인간관계에 있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과감하게 표현하는 것 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는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그와 관련한 속담이 더 많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성광수(2003)는 유교적인 사상이 언어와 행동을 낮추고 최소하고 하는 예절덕목이 몸짓문화를 만들었다고 얘기한다. 이는 유교예절의 덕목인 낮추는 움직임을 하지 못한 상황을 꼬집어 속담을 통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기린은 잠자고 시라소니가 춤춘다’와 같은 속담 속에서는 서민들의 피곤한 삶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다. 여기서의 ‘춤추다’는 부당한 권력이 난무함을 은유적으로 비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을 상서로운 동물인 기린에 빗대고 있는데, 그 성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음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권력적 존재의 부재함에 따라 권력에 억압받았던 힘없는 존재들이 마음껏 행동하고 있음을 ‘춤춘다’로 은유적으로 조롱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봉이 날고, 용이 춤춘다’에서는 용과 봉은 높은 사람 즉 권력자들을 뜻하는데 용이 춤을 춘다고 말하는 것은 권력자의 위세를 춤춘다고 표현한 것이다. 김하수(1994)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현실 사이의 간극의 격차 가운데 끼어 살고 있는 서민이나 대중들에게는 그들의 애환을 표현하며 공적 세계에서 강조되는 가치와 자신들의 삶의 현실사이의 틈바구니를 이해하는 정식적 동조자를 구할 수 있는 상투어구가 필요한 것 인데 그것이 바로 속담’이라고 설명한다.

속담 안에서 표상되는 춤을 보는 것은 그 문화권에서 춤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를 확인 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를 긍정적인 행위로 인식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상황 안에 연결시킴으로써 결국 춤을 추는 행위가 성급하거나 옳지 않았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은유의 방식을 통해 춤이라는 단어를 정치사회와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박환영(1994)은 속담이 은유나 비유와 같은 기능이 있어 직접적인 언어를 구사해도 무방한 권력계층 혹은 남성 보다는 비권력계층이나 여성사회에서 더 발달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춤이라는 장르가 남성문화 보다는 여성문화와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는 언어가 표현기능, 표출기능, 지시기능, 친교 기능, 미적 기능, 관계적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듯이 속담의 지시 기능은 한 사회 집단이 만든 법, 규칙, 직접적 명령과는 다른 ‘제도화 되지 않은 법’이며 ‘완곡한 규칙 공고’이다.⁶⁾ 사회와 인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소통시키고 언어의 미적인 기능을 확장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는 속담이 소멸되지

6) 박은화(2015), pp. vii-viii.

않고 그 다음 세대에서도 사회적 규범과 인식 체계로 받아들일 때에는 지금까지도 이해될 수 있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속담 안에서 춤을 보는 것은 명확한 시대적 구분은 어렵지만 과거에 춤을 어떻게 지각하고 그것이 언어체계 안에서 전달되어 지금까지도 이해 가능한 부분으로 남겨졌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할 수 있겠다.

IV. 맺는 글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속담 안에서 춤이 어떻게 표상되어 왔는지 주목함으로써 구전 문화사 안에서 인식되고 있는 춤을 살펴보았다. 속담 중에서 춤과 가장 빈번하게 드러나는 농경, 가족, 생활, 여성문화적인 부분을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춤 속담 중에는 농경문화와 함께 쓰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서민적 노동 행위를 통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엉덩이를 실룩거리기’가 결국 오늘날 민중적 행동이 표현하는데 있어 엉덩이를 흔드는 행동으로 이어져 각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춤 속담은 가족문화를 나타내는데 있어 남성보다는 주로 집안의 여성의 상하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서 춤을 배치하는 방식은 직접적으로 춤이라는 단어를 활용하거나 긍정적인 의미로 전달되기 보다는 풍자방식을 통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생활문화가 드러나는 춤 속담에서는 무속과 관련한 속담이 많았는데, 여기서 춤은 서열이나 계급을 구분하는 도구로써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춤 속담은 여성사회의 가족관계망과 상하적 구분관계 안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 속담에서 춤을 인식하고 있는 태도는 ‘춤은 경사스럽고, 기쁠 때’ 수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나 춤을 속담 안에서 위치시키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민중의 삶을 풍자적으로 드러내는데 춤을 추는 행위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었다.

속담이라는 구전문화를 통해 춤을 이해한 이 연구를 통해 역사적 흐름에 따른 단편적 학습에서 벗어나 민중의 사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구축되어 온 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시도가 춤과 관련한 구술문화사 구축에 디딤돌 역할이 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곽은희(2015). 『현대속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말복(2015). 『우리 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노상채(2008). 『고사성어와 속담으로 읽는 동아시아인의 경제학』. 광주: 조선대학교 출판부.
- 윤창율(2007). 『두배로 내 사람의 가치를 올리는 속담』. 서울: 인터미디어.
- 이선중(2008). 『한국의 속담 대백과』. 서울: 아이템북스.
- 송재선(1997). 『동물 속담 사전』. 서울: 동문선.
- 성강수 외(2003). 『몸과 몸짓 문화의 리얼리티』. 서울: 소명출판.
- 심후섭(1999). 『재미있게 풀어 쓴 한국의 속담』. 서울: 이상사.
- 박미경(2006). 『다카하시 도루의 조선 속담집』. 서울: 어문학사.
- 박환영(2014). 『속담과 수수께끼로 문화읽기』. 서울: 새문사.
- 장하나(2006). 『속담으로 배우는 과학 교과서』. 서울: 북섬.
- 전치수(2011). 『알수록 재미있는 속담』. 경기: 매월당.
- 정종화(1995). 『한국 전통 사회의 정신문화 구조양상』.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창렬(1999). 『우리속담연구』. 서울: 일지사.
- 남미리(2014). 속담을 통한 전통생태지식 수업이 초등학생의 유추적 사고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유지(2004).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비교 연구: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곽은희(2013). 언어·놀이 문화로서 속담 연구. 『구비문학연구』, 37: 425-457.
- 공지현(2010). 아랍어 속담을 활용한 아랍어 교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중동학회논총』, 31: 97-118.
- 김세훈(1999). 한국과 스페인의 속담에서 빈번한 ‘개’ 이미지에 대한 비교 연구. 『스페인어문학』, 15(1): 447-466.
- 김 정(1994). 한국인 표현행위 기질과 예술적 심성에 관한 연구: 정서·감각표현 및 사고의 원류탐구를 중심으로. 『조형교육』, 10: 47-60.
- 김정환(2011). 유형과 형태로 본 루마니아 동물속담 분석. 『외국문학연구』, 41: 59-81.
- 김하수(1994). 속담에 대한 국어학적인 재인식 시도. 『새국어 생활』, 4(2): 46-62.
- 양민정(2009). 속담을 활용한 다문화가정의 한국어/문화교육 방안 연구: 한·중·일 속담의 비교를 중심으로. 『세계문학비교연구』, 29: 59-82.
- 양지선(2006). 동남아시아 한국어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속담 비교 중심. 『고향론집』, 38: 55-81.
- 오소정(2012).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속담 이해 능력: 친숙도와 비유정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2): 145-164.
- 이황진(2015). 중(僧) 관련 한·중 속담 비교 연구 - 속담에 사용된 ‘중’에 대한 호칭 및 소재별 비교

- 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회』, 43: 243-277.
- 조복희, 김혜라(2013). 속담특성 및 언어발달요인과 아동의 속담이해수준의 관계. 『아동교육』, 22(2): 247-259.
- 한탁철(1999). 한 일 양국의 속담 구조비교: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일본어교육』, 16: 69-88.

논문투고일 2015. 12. 15
심사일 2015. 12. 24
심사완료일 2016. 1. 18

Abstract

Proverb and Dance

Kim, Joohee

Ph.D,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ance culture of Korea in proverb. A proverb is a form of culture embedding, culture identity. Dance in proverb implies lives of ordinary people with lyrical word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Dance in proverb is mostly about female social behaviour. Second, d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agricultural society of Korea. Third, Dance in proverb show with a time for dance history celebration. Fourth, Dance in proverb convey the meaning of a word in a negative uses. Proverb reflects the diverse perspectives of society-culture.

Keywords: Proverb(속담), Dance(춤), Oral culture(구전문화), Korea's identity(정체성), Korean culture(한국 문화)